

충남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송두범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 행정학박사

충남도와 16개 시·군이 출연하여 1995년 전국에서 9번째로 설립된 ‘충남발전연구원’이 올해로 개원12주년을 맞이하였다. 설립초기 연구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흡, 재정지원 열악, 연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 말 현재 1인당 연구건수가 전국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연구역량이 곧 경쟁력

질적인 면에서도 도·시·군 정책개발, 국비확보 및 지방비 절감에 기여, 자치단체의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및 코칭 등 국책연구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연구원 스스로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혁신의지가 충만했고, 충남도와 시·군에서도 일류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해 신뢰하고 지원해준 결과의 산물이다.

그러나 충남발전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수도권 자치단체 출연연구원과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 재원 확충이 필수적이다. 2007년 5월 개최된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시도연구원의 연구원·연구지원·행정직원 수, 연구원 1인당 연구 활동 예산 등이 정부출연연구원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글은 충청투데이(2007. 7. 24)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시·도연구원의 재원 및 연구 인력의 부족, 상대적으로 낮은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소재 연구원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 청사진 제시보다 단기적 현안과제와 연구원 기금확보를 위한 수탁과제 중심의 소극적 연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해안 시대 중국과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집중의 해소, 대전·충북·충남의 상생발전을 통한 중부권 중심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대하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제시 등 보다 장기적·거시적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충남도가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과도 당당하게 경쟁하여 ‘한국의 중심, 강한 충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충남발전연구원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연구를 통해 충남도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충청남도는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재원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관·연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다.

연구원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하는 반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과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확대를 통해 연구원들의 연구역량을 높여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

충남도민과 지역사회 역시 연구원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못된 꾸짖어주는 동시에 격려하고,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10년 이상 불황에서 허덕이던 일본이 본격적인 이룩준비를 하게 된 이면에는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R&D가 곧 경쟁력이라는 경험적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안정적 재원·인력 필수

충남도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량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적으로는 비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혼재된 지역이라는 연유로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 및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민선 4기 출범 1년을 맞이하면서, 충청남도가 전국최고의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의 실현이라는 도정방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한 도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강화와 파트너십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